



통권30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4. 4.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오오 현저동이여 말하라
그날에 죽은 여덟 의인들
그들의 죄명은 무엇이었는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죄,
갈라진 조국이 하나라고 외친 죄,
무심히 서있는 건물 속에서
자유를 지키는 민중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눈은 무슨 꽃으로 피어나는가.

변할 것은 변하되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하는
이 새로운 대결의 시대,
아직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날의 길고 긴 밤은 싸움 위에서
여덟 의인들의 살덩이와 피는
오늘도 짙 짙한 아픔으로 외치고 있다.

(문병란시인의 현저동 참회가 중)

- 1994년 4월 9일,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주최로 열린 4·9 통일열사 추모제
20년전 오늘, 유신군사독재정권은 조작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청학련 배후조종혐의로 이수병, 도예중, 서도원, 하재관, 우홍선, 여정남, 송상진, 김용원 님등 8명을 대법원 상고 바로 다음날, 야만적인 사형을 집행했다.

32년간 오랜 감옥생활을 마치고 음성 '꽃동네'에 살고 계시던 김광삼 선생님께서 지난 4월 1일 새벽, 통일된 조국과 사랑하던 가족들을 보시지 못한 채 폐암(종격동 악성종양)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통일 성업에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생을 철창속에 살게 하였고 만기 출소후에도 사회안전법으로 청주감호소에 수용되어야 했으며 89년 사회안전법 폐기로 출소하여 음성 '꽃동네'로 보내져 정다운 얼굴들과 떨어져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꽃동네에 있는 동안에도 악명높은 보안관찰법에 묶여야 했고 바깥 출입이나 보고싶은 분들 마음처럼 만나지 못하고 끝내는 외롭게 가셔야 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찾아 뵈었을 때만해도 호홉하기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 하시면서도 봄되면 거뜬히 일어날 것이라고 활짝 웃으시더니 갈라진 땅의 철저한 옥죄임이 선생님의 생명을 서서히 앗아가게 했습니다.

가시는 순간을 지켜보지 못한 죄스러움을 안고 선생님의 오랜 옥중동지들과 천정련, 인권운동 사랑방, 민가협 일꾼들과 그외 후원회원들이 4월 8일 음성군 통독면 꽃동네 묘지에 묻히신 선생님 묘소를 참배하고 조출한 추모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못다하신 바램을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이 채우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고이 잠드시길 빌었습니다.



• 김광삼 선생님은 1915년 6월 30일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 태탄리에서 태어나시어 농사일과 선원으로 일하시다가 53년 대남 연락부에 소환되어 안내원으로 일하심. 55년 군산해안에서 체포, 20년형을 선고받고 75년 만기 출소했음.

77년 반공법으로 재구속 3년 옥고, 80년 만기와 더불어 사회안전법으로 청주감호소에 수감. 88년 8월 26일 출소후엔 곧바로 음성 '꽃동네'로 보내져 계셨고 여러 후원자들이 모시려 하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꽃동네 인곡병원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심.

지금 북녘 고향엔 큰아들 가진(44년생), 둘째아들 가일(50년생), 세째아들 영일(55년생), 딸 종숙(39년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길이 살아

이 종

6년전 감호소에서 풀려나 동지는 꽃동네로, 나는 양로원으로 헤어질 때, 그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나왔다고, 기어코 살아서 통일조국의 자랑찬 일꾼이 되겠다고, 32년 격리된 가족의 품에 웃으며 안기겠다고 뜨거운 미소로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동지는 지금 보안관찰법이란 또 다른 악법으로 묶여진 채 임자없는 일구의 주검으로 묻혀있구나.

그간 동지를 구출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완강하게 거절 당했었다. 심지어 김광삼이란 사람이 없다고까지 하고 눈물도 법도 없는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조건에서 병마와 싸우다 가다니 가슴이 아프다.

조국 통일의 투사였기에 32년 감금의 세계 최악의 감옥살이가 이른바 법이며,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고 14년 구금의 감호살이가 이른바 법이며,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다고 6년동안 강제 수용해 사회와 격리시켜 누적된 병마에 죽게 되어도 자유로 치료도 못하고 가족도 동지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 하는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

이 땅이 낫 땅인데, 고향과 가족이 지척에 있는데 못가고 못보고 어찌 눈을 감았는가?

아! 김광삼 동지여! 애국 혼이여!

몸은 갇어도 낮은 길이 살아 있어 우리들의 가슴 가슴과 함께 하리라! 불가분리의 힘이 되어 위선과 악법의 합법을 물리치고 조국과 민족의 하나됨의 영광을 쟁취하리라!

우리는 지금 동지의 무덤 앞에서 아프고 분한 가슴을 억눌러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동지의 투혼과 함께 더욱 투지를 다진다.

동지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의 동산에 동지의 무덤을 옮길 날을 앞당길 것을...

아! 애국 혼이여! 통한을 멈추어라.

영예와 설욕의 깃발이 다가오고 있다.

고귀한 삶을 사시었으니

신 현 칠

선생께서 돌아가시다니 남은 우리에게겐 겹치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선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통일된 조국에서 가시게하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얼마나 가시는 순간에 한스럽고 가슴아프셨습니까. 선생의 슬픔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슬픔이 더욱 깊고 시대의 간난(艱難)한 행보가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청주옥에서 함께 풀려난 후에 우리는 서로 오래 만나지 못하고 선생을 병고속에 외로이 이곳에서 가시게하는 슬픔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생의 그 한없이 순후하고 따뜻한 모습과 인품이 떠난 일은 없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지난 옥살이 이야기하며 웃고 서로 오래 살고 위로해 보지 못한 한스러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채웁니다.

선생은 늘 과묵하시어 당신의 지난 날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0년전 황해도 땅에 나시어 순량한 태고의 백성처럼 농사에, 선원일에 힘써 사시고 마침내 조국의 진정한 통일의 길에서 잡히신 몸이 되어 전후 30년 이상의 옥고를 치르시고 오랜 옥안의 고난속에서 끝까지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마치시니 진실로 선생은 이 간고한 시대에 사는 이 땅의 아들로서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고귀한 삶을 사시었습니다.

그 몇몇함과 자랑스러움과 일생을 힘껏 싸우고 쉬는 전사의 평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드시기를 남은 우리들 모두의 존경과 애정을 모아서 빕니다.

1994. 4. 8.

함께 옥살이 한 동지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편 집 부

저 만치서 까만 가방을 메고 바쁜 걸음으로 선생님이 오고 계셨다. 치과 기공소에서 또 어디론가 출장을 보내는 모양이었다. 날씨가 푸근해져서 엇그제보다 가벼운 옷차림에 연하늘색 베레모를 쓰고 계신 선생님께서 반색을 하셨다.

“여기서 150번 좌석버스를 타고 난곡까지 가야 되겠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필 거기에 다녀오라고해서.” 일흔의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현역(?)이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잠깐씩 만날 수밖에 없었다.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냉수마찰을 하고(공동생활의 규칙이었다) 7시쯤 수유리 만남의 집을 나서면 8시 반에 직장에 도착한다고 하셨다. 그날만 해도 벌써 아침 나절에 서너군데나 다녀오신 뒤였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나마 눈썹 붙이셨으면 하고 바랬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인 지라 내내 긴장하고 있어야했다. 젊은 우리도 하루에 두번 이상 차를 타면 피곤해지는데, 때로는 의정부, 성남까지 먼 거리를 다녀오셔야 하는 선생님께서는 오죽 피곤하실까?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습관이 돼서 괜찮노라며 나의 걱정을 일축하셨다.

열여섯에 밀선을 타고

김영만 선생님께서는 1924년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에 있는 어려운 농가에서 태어나셨다.

“봉건시대 천민이라 하시를 받고, 토착지주한테 어머니들이 종살이하듯 일을 해줘야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젖이 없어서 암죽을 먹고 자랐

지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년 남짓 한문 서당을 다니다가 인쇄소 문선공으로 취직을 하셨더라. 어린 나이에 일이 고되서 그만 두고, 순천 순흥 농장에 급사로 가게 되었다. 당신 아버님께서 농토에 한이 되어 논을 준다는 바람에 급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만보니 한 몇 해 있어야 서너 마지기 얻을까 말까 하였다. “주인놈이 이발 기계독이 올라 마늘로 머리를 문질러 주거나 안주인 시장갈 때 따라가거나 했어요. 그런데 나를 자기 부엌에서 키우는 개새끼 취급도 안하거든. 그때부터 성격상 그랬는가 모르는데 있는 놈들이 밋고 그랬지.”

농장을 나온 후 함경남도 풍산 공사장까지 쫓아 올라갔다가 급기야 1939년에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가셨다고 한다. 불과 열여섯 살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10원을 몰래 꺼내들고 밀선을 탄 것이었다. “송도에서 탔는데 달밤에 사람이 인산인해라, 50명 실어야 할 배에 500명이나 태우니 사람위에 사람이 포개지고 말여. 한끼에 40전씩 밥을 파는디 한 열흘 먹고 나니까 돈이 떨어져서 꼬박 굶었드랬어. 뱃속에서 고생한건 말도 아니야. 감옥에서 단식한 만큼 했지.”

늑초가 되어서 도착한 일본, 그러나 몸을 뉘일 새도 없이 밀선을 타고온 조선인을 수색하는 일본 경찰에 쫓겨야 했다. 선생님은 이때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 어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반대편으로 가자고 했고, 조선 두루마기를 입은 아저씨가 들키지 않게 인술자의 국방색 노동복으로 갈아입히기까지 했다. 결국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중 탄광까지

간 사람들은 선생님 일행 뿐이었다.

사흘 밤을 긴장과 피곤에 찢어 탄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강제로 일을 시켰다고 한다. 조선에서 오는 여비까지 주고 데려왔으니 한시도 놀릴 수 없다고 했다. 담배 한 갑에 15전 할 때인데 안전등을 메고 탄차를 미는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이 고작 50전이였다. 물론 차등 임금이었고, 식량배급도 차별을 해서 일본인 노동자는 가고시마산 고구마를 주고, 조선 노동자에게는 물고구마 썩은 것을 주는 식이었다. 그후 후쿠오카에 있는 탄광을 거쳐 친구의 소개로 건축계통에서 2년쯤 일하다가 구슈 수력발전소 굴을 뚫는 일도 하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비행기를 숨기는 격납고 만드는 일도 하였다. 전시라 물자부족으로 생활도 형편 없고 폭격이 계속되자 조선으로 가는 연락선도 못 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다. 1944년 12월 25일, 6년만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8·15 전에는 여수에서 김 사가지고 서울로 팔러 다닌다고 그 야단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지. 그 다음엔 뭐인가 치안대에서 좀 있다가 국방경비대 3기생으로 광주 4연대에 입대했어. (1946.6.3)”

신문을 보며 민족적 저항의식을 싹틔우던 중 남로당에 입당하면서 선생님은 인생의 이정표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동지애야말로 굉장했지. 비합법적인 조건이라 규율이 엄했지만 비밀스럽게 만나면 이등병이고 하사고 서로 악수하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줬어. 그런 동지애로 뭉쳐진 게 14연대 봉기의 원동력이 지.”

뒷날 여순사건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지희 중위도 조직원이었는데 ‘과도기 경비대 안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싶게 이론이 좋은 뛰어난 선동가였다.



▲ 청년의 기백으로 아직도 현역(?)이신 김영만 선생님

그와 함께 여수로 모병을 하러 갔는데 중학생들이 감화를 받고 많이 입대하였고, 구례에서는 수배자들을 입대시켜 조직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순 사건 직전에 배신한 조직원이 프락치라고 밀고하는 바람에 선생님께서는 정보부 특무상사에게 붙들려 광주 도경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동무를 도주시키면 조직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 붙들려 가다가 도망을 치라고 그러. 특무상사와 이등병 말고 호송을 도우러 온 2명이 동지들인데 광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뛰어내리기로 했거든. 그런데 수갑을 채우고 포박을 해서 약속된 장소에 다달았는데 꼼짝을 할 수가 있어야지. 따라온 동무들이 더 식은 땀이 나드라고.”

물증이 없어서 1차 조사 때는 잡아뗐지만, 4월 19일 제주도 민중의 4.3 항쟁을 진압하기로 된 14연대 1대대가 진압거부를 천명하며 봉기하자 2차 취조 때는 악랄하게 고문을 당했다.

“미국 앞잡이인 CIC가 말여. 하나만 인정을 하라는겨. 남로당 당원이라고 삼베로 코를 막고 물고문을 하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여. 조사 받으러 가서는 아니라고 하니 까 코일로 몸을 감고 뺨데리를 잡아 돌리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도 끝내 아니라고 했지.”

만신창이가 된 선생님을 가마니에 둘러싸워 한 밤에 짐짝 던지듯 유치장에 던져 놓았다. 감방에 오니 모두들 두드려 맞고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동지들이 선생님을 위해 하얀 쌀밥으로 주먹밥 두 덩이를 만들고 배추 김치를 주며 먹으라고 하더라.

결국 1949년 4월 무죄로 풀려나서 불명에 귀가 조치를 당했다. 정세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선생님은 귀가 증명서 발급하는 이에게 사정을 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귀가증에는 '사상 피의자' 대신 '관급품 부정사고'라는 별로 향기롭지 못한 말이 붙긴 했지만.

거적에 둘러싸여 돌아가신 아버지

한국 전쟁 이후 선생님은 난처한 처지가 되었다. 신분이 애매해서 후방 빨치산 토벌대로 끌려갈 뻔 한 것을 빠져 나오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한 청년단 본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9.28 이후 구례에서 자치군을 조직하고 모병활동을 하던 중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투쟁을 시작하였다.

“싸움이란 건 해보지 않은 사람인지 토지면서 숨 격을 잰 거. 생전 총을 쏘아 보기를 했는가? 남쪽, 북쪽 양쪽에서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편에서 던진 수류탄에 우리가 놀래서 다들 보리밭으로 나와 버렸어. 그날 사업 총화짓는 마당에 비판을 말도 못하게 받고 무장해제 당한 뒤에 보급부로 가게 되었어.” 경비대에서도 보급중대에 있었는데 빨치산에서도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며 웃으셨다. 그런데 산에 마땅히 창고라고 할만한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조금씩 숨겨놓았는데 트(아지트) 주변에는 놓을 수 없어서 감춰둔 장소를 외우느라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고 한다.

1951년 여름에는 다시 무장부대로 가서 정치학 습도 받고 복수 대대 7중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1년 겨울부터 대공세가

시작되었고, 빨치산을 잡기 위해 개미떼처럼 둘러싸인 토벌대의 포위를 뚫고 빠져 나갈 수 없었다.

머칠을 꼬박 굶고 옆친데 댔친 격으로 동상에 걸려서 의무과를 찾아가던 중 토벌대에게 잡혔다고 하였다. 1952년 1월 16일 이었다.

“죽이라해도 죽이들 않고 현상이 붙어서 건빵도 주고 토벌대들이 옆고 덩졌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찰들한테 나를 자수시키라고 탁 달을 받다가 매 두드려 맞고... 거적대기에 둘러싸여 눈 것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라.”

오롯이 한 길을 걸으며

〈일본은 없다〉를 보면, 일본의 전후 세대들이 얼마나 역사에 대해 무지한지 나타내주는 대목이 있다. NHK 설문조사에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응답자의 30%였고, 조선인에게 강제로 일본어를 쓰게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학생은 “공짜로 제2 외국어도 배우고 좋잖아요?” 했단다.

식민지의 기층 민중으로서 험난한 청춘을 보내고, 해방과 전쟁의 시기에 오롯이 한길을 걸어간 선생님의 개인사를 들으면서 나는 일본의 전후세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로 했다. 우리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악행이며, 아직도 우리는 이루지 못한 민족적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괴롭다 그런 생각 해보질 않았단구. 조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인생관이 뚜렷해지고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어진 동지에, 조국애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걸 가르쳐 주었어. 우왕좌왕하다 가는 지 화에 자멸했을거여.”

다시 치과 기공소로 들어가야 한다며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쟈 걸음으로 앞장을 서신 선생님의 뒷 모습은 새삼 당당하였다.

‘前 양심수후원회 계모임’을 만드는 날까지

희망찾기

3월 20일 아침 10시 당고개역 매표소.
 신랑신부가 결혼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기다렸다면 조금은 과장이겠지만 봄의 문턱에 들어 처음 맞이하는 양심수후원회 산행에 우리 ‘희망찾기’ 친구들이 한명 빠짐없이 가기로 한 컷나들이라 기대반 걱정반이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들을 새로 만난다는 것.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 만남의 공간이 더이상 침침하고 공기 탁한 카페가 아니라 하늘과 땅, 대기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김없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는 ‘노래시간’이 미리부터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운 좋게 모면하기를 바래자. 아니면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의 노래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관행>을 없애고, 본인의사를 존중해줍니다.’라고 말 할까?

곰지럭거리다 조금 늦게 나왔지만 전철을 빨리 타 10시 정각에 당고개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둘러 매표소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아직 아무도 와 있지 않았다.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왔다는 뿌듯한 기분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1~2분 서있자니 좀 석연찮다.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분도 안 오실 리가 있는가. 혹시 장소가 잘못되었나. 역안을 휘휘 돌다 밖으로 나가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선생님들 이하 거의 모든 회원들이 이미 준비만반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버렸다. 그 뒤로 ‘희망찾기’ 친구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의 30분은 민망, 불안, 난처 그 자체였다. 여러명이 만날 때는 특히 단체 모임인 경우 으레 30분, 1시간은 늦으려니 하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이 후원회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 늦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결심은 젊은 사람이 선생님들 앞에서 게으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이기도 하지만 이 사소한 것같은 시간약속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나의 자세문제를 느끼니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드디어 수락산으로 출발. 날씨는 청명했고, 우리 산행은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식구들의 동참으로 인해 더욱 든든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등산행로나 걸음걸이를 무리하지 않게 한 탓도 있지만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사이 어느새 봉우리 하나를 다 올라왔다.

산꼭대기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사방을 둘러보는 기분은 언제나 최고다. 눈을 돌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 어느결에 낮이 익었다. 산에 서투른 우리들을 오히려 잡아주고 끌어주시던 선생님들과 길잡이를 자처하며 흥길동처럼 날렵히도 움직이던 이정태회원, 무거운 비디오카메라 가방을 끔끔대며 들고 다니시던 김태일회원, 엄마따라 씩씩하게 산을 갈도타던 티없는 예술, 영민... 앞으로 몇번의 산행을 함께 더 하면 이 모두의 얼굴 뿐 아니라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시간악속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나의 자세문제가 느끼니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능선따라 사방에 봉우리는 많았지만 이제는 주린 배를 달래고, 함께 어울릴 시간이다. 다시 길을 내려오다 중턱에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잡은 일행은 서로 무리지어 식사를 우선 하였다. 산행을 가볍게 여긴 우리는 점심준비를 별로 해오지 않았다. 김밥 몇줄과 굴 몇개 이 정도가 다였는데 다른 사람들 도시락을 훑쳐보니 이만저만 알찬게 아니다. 김밥과 반찬들이 소담스레 담겨져 있고 음료수에 과일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끼리 앓는 게 아닌데, 옆에서 이것저것 얻어오고, 함께 자리하신 왕영안 선생님께서 과일 한봉지를 꺼내 놓으시니 우리 점심상도 자못 풍성해졌다. 산행이 준 두번째 교훈이다. <다음 산행에는 알차게 식사 준비해와 나눠먹는 기쁨을 누리자>

드디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산행은 60명이 넘어 소개는 간단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끝이어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후원회원의 지도로 울동과 노래를 섞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불길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밭길 들무덤 바위산을 뚫고서'라는 노래 소절마다 옆의 사람 가슴을 짹 칠 정도로 팔을 죽죽 뻗고, 꼬집고, 머리와 머리를 박치기하는 다소 '폭력적인' 놀이였는데 솔직히 연배있으신 선생님들을 어찌 꼬집고 때릴 수 있겠는가 점잖은 생각을 했었는데, 노는데 남녀와 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없었다. 인

정사정없이 맞고 꼬집히는데 결국은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흠가루를 뒤집어썼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이 신나게 풀렸다.

내려가는 길은 한결 걸음 가볍다. - 주로는 다 먹고 짐이 가벼워진 탓이지만 - 오늘은 사실 처음이라 선생님들이나 다른 회원들과 그리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자신있게 인사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무엇보다 모두들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다.

다른 모임과 판이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연령의 분포도다. 유치원, 국민학생 꼬마 후원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흔 넘으신 선생님들도 계신다. 그런데 모두 함께 마치 한 가정을 이루듯 나이를 불편히 여기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청춘의 감성과 의지가 왕성하시고, 국민학생 친구는 우리보다 더 의젓하고 하는 행동이 어른스럽다. 그래서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들 20~30대의 젊음으로 만날 수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잘해야겠다. 우리는 사실 돕자는 마음이 앞서 회원이 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금은 침체되고 정체된 우리의 생활에 힘과 도움을 얻으려는 심정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길을 함께 내려오며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듯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희망은
허황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희망은 허황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산행을 마치고 명동의 전통찻집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드디어 '빠짐없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 온 것이다. 참 고역이다. 우리 민족은 왜 이다지도 노래를 즐기는 것인지. 그래도 노래부르는 것을 결사

적으로 반대하던 우리 친구가 그럼 부르지 않아도 된다면 다시 앉히는 사회자를 무시하고 기어이 노래 한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노래는 역시 필요악임을 깨닫는다.

양심수후원회가 '전 양심수후원회 계모임'이 되는 날까지 산행에 힘차게 나서자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 "나 짤리면 안뒤여~" — 수락산을 내려오다 사진 한방을 찰라.

해도 그 죄, 안해도 그 죄랍니다

편 집 부

스물아홉번째 목요일집회가 열렸던 그날은 봄기운이 물씬하였다. 목요일집회를 끝내고 부랴부랴 달려오신 어머니는 그런 봄기운처럼, 큰 눈망울이 무척이나 선해보이는 분이셨다.

“지 옳은 거 택해 했으니 내 뭘 탓을 하겠소. 욕심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거 한답디다. 자식의 깨끗한 마음에 만족해야지요.”

91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조형곤군 (88학번) 어머니 안금득님은 ‘할말이 없는데’ 하시며 연신 걱정하시다가 꺼내신 첫마디도 역시 자식두둔이었다.

어머니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3형제를 낳으셨다. 남편은 5남매의 맏이로, 어렵게 공부를 해나갔기 때문에 배움의 열정이 남달랐고 자연 성실히 공부 잘하는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한다.

집이 멀어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 고시원에서 생활해야 했던 형곤군은 가끔씩 한번 집에 와서는 최루탄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아버지와 시국에 대해 입씨름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때마다 ‘어머니, 나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운동하는 겁니다.’라며 두손 잡아주고는 돌아가곤 했다.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녀의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것이 신조라 ‘다른 좋은 일도 많으니 그저 평범하게 살아라’ 타이르기도 많이했지요. 선거출마 얘기듣고도 극구 말렸는데 ‘저를

사람들이 그만큼 지지해서 하는것이니, 믿어달라’ 하더라. 선거 며칠전에도 말리려 저녁에 학교로 갔다가 수척해진 자식놈 얼굴에 결국 주머니돈 다 털어주고 왔구만.”

그뒤로 계속되는 수배생활로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남편이 고혈압이 악화돼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어머니 또한 수배중인 자식 뒷바라지는 염두도 못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91년 9월 27일,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당시 근처 파출소 순경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농대 1학년 2명을 불법연행한 일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파출소 앞으로 몰려가 불법연행을 규탄하다가 길가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한 대학원생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다. 이른바 ‘한국원씨 사건’이었다.

“한국원씨 사건을 형곤이와 묶으려 했나봐요. 면회를 갔더니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잘못을 했다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난 적이 있는가, 왜 학생들한테만 안한것도 학생회장이 다 책임져야 하나. 법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지.”

결국 경찰은 그 사건과의 연관점을 찾지 못했고 형곤군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양심수 참고기록을 보면 형곤군의 이름 옆에는 유독 많은 죄명이 적혀있다. 집시법, 화염병, 폭력, 그리고 법정모독죄. 하나하나 따지자면 억울하

악한 자는 죄 아닌 것도 씹우면 죄라구,
10개월 더 시는게 문제가 아니지요.

억울하게

더러운 죄명을 뒤집어써도
어찌지 못하는게 복장터질 뿐이지요

지 않은 것이 하나 없지만 어머니는 유독 “법정도 독죄”라 적힌 것만 보면 지금도 심장이 쿵쿵 뛰신다.

형을 선고받은 당시, 항소하면 형이 1년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위의 권고에도 군대문제 때문에 보류하다 검사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꼭 한마디 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겠다고 그러데요. 깜짝 놀라서 그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다 더 형만 늘리고 말리니 ‘어머니, 말해도 그 죄, 말 안해도 그 죄랍니다.’고 합니다.”

조형곤군은 항소 법정에서 당시 시국과 관련한 불공정한 재판 판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감정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강기훈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강경대군 치사사건의 전경들은 이미 사회로 복귀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외친 학생들은 계속 부당한 형을 받고 있는 것 등 - 을 준엄히 규탄하면서 외부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법복시위라도 해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항의하였다. 이 ‘법복시위’ 주장은 말 많은 언론에 의해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채 말을 맺지도 못하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저 땅을 치고 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도 한이 되신다.

이 사건으로 형곤군은 다시 기소가 되었고 법정 모독죄로 10월 형이 더 추가되었다.

“담당검사를 찾아가니 그 사람 말하는게 가관이



야. 학생죄도 여러가진데 형곤이가 법정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것도 충분히 죄가 된다나. 그래도 꼭 재판을 해야 하나니까 자신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 까 밥먹고 살기위해 한다고 하더군. 그런 사람들이 뭘하면 밥 굶고 살려고 그런 짓을 하는겐지...”

전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지, 기어이 손수건을 꺼내시는 어머니의 눈가는 이미 눈물로 짓물려진 흔적이 역력했다.

“악한 자는 죄 아닌 것도 씹우면 죄라구, 10개월 더 시는게 문제가 아니지요. 억울하게 더러운 죄명을 뒤집어써도 어찌지 못하는게 복장터질 뿐이지요.”

이미 아들의 이름 뒤에 불려지는 죄명 하나하나

나가기만 하면 무슨무슨 일도 하고 취직도 해서
어머니 편히 모시겠노라 위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 이들을 받아 줄 세상이 걱정이다

가 어머니 가슴에 못이 되어 쿵쿵 박혔는데 학교 다니면서 했던 일들로 정해진 것들이야 어쩔 수 없 다쳐도 부모가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 씌어진 죄명은, 마치 힘없는 부모의 탓인양 느껴지는 것이다.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31개월째의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는 형곤군은 면회날 때마다, 집안 걱정 뿐 이란다. 두동생마저 군에 입대한 지금, 편찮으신



▲ 민가협 목요일집회에 참석하여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안금득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와 가게를 운영하실 어머니는 더욱 걱정인 것이다. 나가기만 하면 무슨무슨 일도 하고 취직도 해서 어머니 편히 모시겠노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받아 줄 세상이 걱정이다. 아들은 믿어도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한 것이다. 그래도 할머니는 후배들이 해준 손자 칭찬을 지금도 되뇌이며 마냥 좋아하신다.

“형곤이 구속되고 1년 후에야 민가협에 나올 여유가 생겼지요. 그나마 지금은 형곤이 아버지가 많이 나아지신 거라우. 형곤이는 민가협 일 열심히 하라고 항상 그러지요. 예구, 지난 5.6공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나. 세월이 넘어가 어서어서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때가 와야겠는데 어느 시대가 이것을 알아줄란가. 자식위해 운동한다는 형곤이가 진짜 부모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될텐데”

계절은 차갑게 언 땅도 녹이는 봄기운으로 가득한데, 봄햇살 속에서도 어머니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 자꾸만 저리고 쭈시는 팔, 다리를 주무르며 ‘내자식 내놔라. 내형제 내놔라’ 오늘도 여전히 한스러운 외침을 외치고 있다. 이 어머니들의 슬픈 외침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불편한 몸을 추스리며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등뒤의 환한 햇살이 마냥 부담스러워졌던 날이었다.

책 아니고는 무료함을 달랠길이 없어요

한선생 보시요

두번에 걸친 소포와 편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11권의 책 중에는 내가 여기서 사려다 종내 못산 책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객적은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 교도소 내에서 젊어서는 책이 없어 보지 못했고 이제는 늙어서 정력이 달려 많이 보지 못하니 일이 되어감이 짝깍지 않습니다?

책이 없이 한 때를 보낸 적이 있는데 참 곤란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공부나 제대로 되겠습니까만 독방에서는 책 아니고는 무료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9년간 면벽 좌선하여 대오를 이룩했다지만, 우리는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벽에 쓰여진 낙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해보고 온갖 공상도 해보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노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좁은 방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보아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땀 책이 좋은 소일거리지요 훌륭한 책은 도움이 되요 한번은 같은 감방에서 합거했던 동무와 헤어진 일이 있는데 그는 갈 때 명문당 옥편을 한권 가지고 갔습니다. 각각 독방에 있다가 1년후에 만나 얼마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더러 옥편을 찾을 필요없이 무슨 글자던지 물어보라는 것이예요 당시 명문당 옥편은 3만자 정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는 매글자마다 뜻이 다른 것, 음이 다른 것을 모조리 외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한문 독본이나 통감등을 읽어 문리나 트고 조건만 좋아지면 익힌 한자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정은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날 글자만 아는데 그쳤습니다.(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꽤지 않는 구슬처럼 생각되었어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는 물론 본인 자체의 노력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그 여건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고 보니 참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꽃을 피보지도 못하고 죽어 갔는데...

몸 조심하십시오 나는 별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3월 7일 홍명기 씀

홍명기 선생님은 62년 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3125번)에서 33년째 복역중이십니다.

이런일이 있었어요

3. 1 : •수유리 “만남의 집”을 옮기는 문제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의견 나누었습니다.
3. 3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민중기수 박진원 님이 함께 했습니다.
- 회원사업 기획모임 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은영, 나명주 회원이 대표로 총회준비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3. 4 : •민가협 총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지방 민가협 대표와의 연석회의였습니다.
- 김남주 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3. 5 : •동국대 사범대 학생들이 사무실을 방문, 장기수와의 편지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고 김남주 시인 토요제가 있었습니다. (대각사)
3. 6 : •시립양로원에 계신 임병호 선생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3. 7 : •문익환 목사님 49제 묘소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민가협 총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 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후원회 5차총회를 준비하는 총준위 구성건과 복지기금 사용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3. 8 :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송갑석 군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3. 9 : •민가협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자료가 한겨레 신문 1면 상단 기사로 실렸습니다.
- 3.10 : •민가협 목요일집회(국가보안법 철폐)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노래공장’과 함께하는 거리음악제였습니다.
- 김지현씨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김지현씨는 결핵성 농양으로 수술을 받고 한양대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 해화, 을지전화국 사고로 사무실 전화가 불통이었습니다.
사무실과 연락이 안돼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 3.11 : •우리 후원회의 오랜 회원이신 박현채 교수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혈압으로 운신을 못하시는 상태이고, 보라매병원 904실에 입원중입니다.

- 박창원 선생님을 찾아뵙고, 현대교회 선교위원 분들과 양심수 후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또 1,2,3월 후원금(1,200,000원)을 전해주셨습니다.
- 늘 큰도움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3.12 : • 후원회 소식지 29호 발송작업을 했습니다.
- 안천홍, 유성예, 김영주, 김성희, 한금주 님이 도와주셨습니다.
- 3.13 : • 수유리 만남의 집을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은숙, 문정우, 정명숙, 신현부, 박혜경, 강기옥 님과 함께 했습니다.
- 후원회 소식지 29호를 회원들과, 국내외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 3.16 : • 민가협 제9차 총회가 기독교회관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 광주, 부산, 대구, 전주, 대전, 강릉 민가협 회원들이 멀리서 오셨고, 사회단체 내빈들과 여러 장기수 선생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 총회에서는 서경순 구학협 회장님을 민가협 상임의장으로, 박용길, 윤혜경, 권오현 님을 공동의장으로 인준하였습니다. 제9차년도 주요사업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하여 싸워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3.17 : • 민가협 목요일집회('조작간첩 사례발표')가 탑골공원 앞에서 있었습니다.
- 3.18 : • 임병호 선생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선생님은 현재 전립선 수술을 받기위해 3월 21일 강남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3.19~21 : • 「판서 한국 정치범 구원 연락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방일 기간 동안에, 재일 한국인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 3.19 :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 변함없는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20 : • 3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와 함께한 3월 산행은 무려 63명이나 참석을 하였고, 이번에는 수락산을 등산했습니다.
- 새회원들의 참여가 많아 좋았고, 앞으로는 조를 편성해서 회원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루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3.21 : • 대구 교도소 양심수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 대구 경북대 장기수 후원모임 '햇살'을 만나 장기수 후원사업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 육군 장호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선언 전경 조정희 씨가 소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 3.22 : • 소식지 편집모임이 있었습니다.
- 민가협 9차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3. 23 : • 양심수를 후원하는 선생님이 1,000,000원을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산휴가를 마치고 송록회 간사가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3. 24 :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제로 하였고, 극단 희망새가 함께 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했던 희망새 단원 6명이 집회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폭력적으로 불법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중 4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나왔지만 가수 이상엽, 이윤정 님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교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배포)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서 국가보안법의 횡포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3. 25 : •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관)
• 광주에서 양심수를 염려하는 한 청년이 바자회를 마친 이익금 2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주 평화 통일 민족회의' 발기인대회가 수운회관에서 있었습니다.
3. 26 : • 김삼석, 김은주 남매 후원금 마련 주점에 다녀왔습니다.
• 장기수 72분께 영치금을 보내드렸습니다.
(60분:각 15,000원, 10분:미국 수교교회 성금.각 2만원, 2분: 5만원)
3. 27 : • 늦봄 문익환 목사님 방북 5주년 기념 및 추도 기도회가 한빛교회에서 있었습니다.
3. 28 : •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에서 성금 3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금은 정주용님 자녀와 박동수님 자녀에게 각기 100,000원씩 전해 드렸습니다.
• 후원회 총회준비를 위한 총준위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93년 사업평가와 6차년도 사업계획을 토론했고, 감사패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3. 29 : • 출소장기수 선생님 7분과 만남의 집에 생활지원금을 전해 드렸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양심수 (이윤정, 이상엽 님)에게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 한양대병원에서 입원중인 김지현님께 치료비로 300,000원 전해드렸습니다.
3. 31 : •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예술, 창작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희망새를 석방하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류금신, 김영남, 노래공장 등의 가수가 함께 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6차년도 정기총회

양심수를 후원하고 출소장기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심수후원회가 어느새 제6차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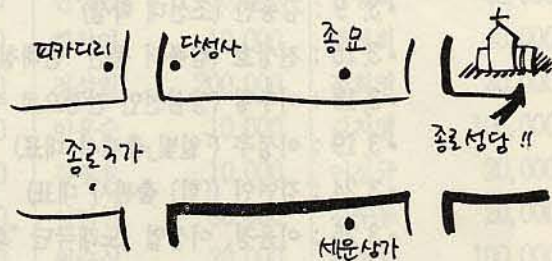
그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심수와 세상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주고 또 창살 안 양심수들에게 한줄기 햇살같은 기쁨을 안겨주시는 회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두 오셔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또 잘한 일은 무엇이고 부족했던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시다.

때 : 1994년 4월 23일 (토) 늦은 4시

곳 : 종로성당

차례 : 1부 양심수후원회 제6차 정기총회 및 기념식

2부 모두가 하나되는 '뒷풀이'



4월 산행

진달래가 온 산천에 흐드러지는 4월입니다.

그날, 핏빛 진달래로 스러져간 젊을 녀를 기리며,

모두 함께 북한산행을 시작합니다. 4월 산행은 4·19묘지 참배도 있겠습니다.

모이는 곳에 오는 순서대로 산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언 제 : 1994년 4월 17일(일) 이른 10시

■ 어디로 : 우이동 그린파크 앞

■ 준비할 것 : 회비 3,000원, 도시락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온덕순 (중랑구 면목동)	어울림
서울산업대 89동기모임	안종국 (서초구 양재동)
정희영 (성남시 은행동)	백미경 (은평구 증산동)
장상유 (인천시 가좌동)	이순정 (강동구 암사동)
이선무 이상희 이상백 이상태 이상미 (동작구 상도5동)	

3월에 구속된 양심수

- 3. 8 : 황선자, 정명희, 유은아 (사노맹 관련, 인천구치소 수감)
- 3. 9 : 김용민 (조선대 학생)
- 3. 15 : 진상호 (컴퓨터 통신 “현대철학동호회” 운영위원)
- 3. 18 : 이우형 (양심선언 전경으로 수배중 구속)
- 3. 19 : 이성우 (『일빛』출판사 대표)
- 3. 24 : 김연인 (〔힘〕출판사 대표)
- 3. 25 : 이윤정, 이상엽 (노래극단 “희망새” 가수)
- 3. 27 : 백형록, 조돈희 (자 현대중공업 노조대의원, 조직쟁의실장),
이완순 (동흥전기 노조위원장) 함평기(전해투) - 혁사노 관련



- 지난 3월 24일 민가협 목요일집회에 참석한 극단 희망새 단원을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수사관들이 쥐새 봉고차(서울 6보 1848)에 강제로 싣고 있다.
- 한편 희망새 가족들과 민가협은 이들을 불법체포감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 발했다.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 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 ☎ ☎ - ☎ ☎ ☎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